

“조상님, 차례상비용 너무 많이 올랐어요”

aT, 농축수산 28개 품목 조사

평균 차례비용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31만8045원' 전통시장 27만2171원·대형 유통업체는 9만원 더 들어 무 53.4%·밀가루38.6% 등 15개 품목 두자릿수 올라

올해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6.8%(2만241원) 오른 31만8045원으로 조사됐다.

비용을 조사한 주요 농축수산 식품 28개 품목 가운데 21개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다.

25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2년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 자료에 따르면 명절은 17일 앞둔 지난 24일 기준 평균 차례상 차림 비용은 31만8045원으로, 지난해(9월14일) 29만7804원보다 6.8%(2만241원) 올랐다.

공사는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광주 양동시장 등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 가격을 조사했다.

업체별로 평균 차림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27만2171원으로, 대형 유통업체 36만3920원보다 25.2%(-9만1749원) 저렴하다.

전통시장 차림 비용은 전년(25만4296원)보다 7.0%(1만7875원) 올랐고, 대형 업체는 전년(34만1312원)보다 6.6%(2만2608원) 상승했다.

우선 전통시장 성수품 가격을 보면 28개 품목

가운데 21개가 전년보다 올랐다.

이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무로 나타났다.

무 100g 가격은 지난해 118원에서 181원으로, 53.4% 뛰었다.

이어 밀가루 38.6%(kg당 1416원→1963원), 대추 33.5%(400g 6402원→8544원), 부침용 두부 26.5%(4포 4071원→5148원), 동태 25.9%(마리당 2475원→3115원), 시금치 25.9%(400g 4937원→6217원), 배추 22.1%(300g 669원→817원)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시마(16.8% ↑)와 소고기(양자·12.7%), 고사리(11.6%)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품목이 15개나 됐다.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19개 품목 평균 가격이 올랐다.

특히 시금치 가격(400g)이 지난해 5925원에

서 올해 1만4508원으로, 무려 144.9% 뛰었다.

녹두(83.5% ↑), 무(61.6%), 밀가루(60.7%), 다식(38.6%), 계맛살(31.1%), 배추(27.9%), 대추(26.8%), 북어(19.6%) 등 국내 외 식재료 수급 불안정을 겪은 농수산 식품들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이런 추세를 앞두고 생육이 부진한 사과의 경우 전통시장(15.2% ↑)과 대형 업체(57.3%) 모두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서 사과 5개 가격은 지난해 1만3680원에서 올해 1만5756원으로 올랐다. 마트에서는 1만1333원에서 1만7830원으로 급등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올랐다"며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쌀 가격(2kg)은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보다 14.8%(-907원) 하락한 5217원으로 조사됐다.

시장 잡채 가격(200g)도 지난해 5182원에서 올해 4496원으로, 13.2%(-686원)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할인권(농할쿠폰) 적용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농할쿠폰을 활용하면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는 행사 품목 결제 때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은 사이트에서 추석 농할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때 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20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추석 성수기 전체 공급량의 40% 이상을 집중함으로써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성수품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육가공품·조미료도 오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식품업체가 연이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라면·스낵 등 곡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데 이어 25일에는 육가공품 가격 인상 계획이 잇따랐다.

식품업체에 따르면 사조대립은 내달부터 닭가슴살 마일드·블랙페퍼(100g) 2종의 편의점 가격을 3300원에서 3700원으로 12.1% 올린다.

하림도 내달부터 닭가슴살 갈릭·블랙페퍼(110g) 2종의 편의점 가격을 3400원에서 3700원으로 8.8% 인상한다.

대상은 내달부터 가정간편식(HMR) '안주야 무뼈닭발'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8900원에서 9500원으로 6.7% 올린다.

또 조미료 제품인 '미원'(100g)의 편의점 가격도 2400원에서 2700원으로 12.5% 오른다.

각 업체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재료가 상승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동원F&B도 원·부재료 가격 급등에 따라 캔 햄 제품인 '스팸 클래식'(200g)과 '리얼 오리진날'(200g)의 편의점 가격을 각각 6.7%, 6.9% 인상한 바 있다.

농심은 내달 15일부터라면 가격은 평균 11.3%, 스낵 가격은 평균 5.7% 올린다.

빙그레도 내달 1일부터 '벨뷰브 플레인 치즈'(78g), '레팡카우 8포션 플레인' 등 벨뷰브 치즈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연합뉴스

“올 물가 5.2% 상승” 24년만에 최고 수준

한국은행 경제전망 수정 발표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까지 크게 올려 잡았다. 동시에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2.6%로 더 낮췄다. 내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지겠지만, 성장률 역시 크게 낮아져 2%를 합계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준 전망치(4.5%)보다 0.7%포인트나 높고, 한은 소비자물가 연간 전망치로서 1998년(9.0%)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망대로 올해 5%대 상승률이 실현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이 이처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이미 6%를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

전년동월비 6.3%)과 사상 최고 수준인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 보복소비(지연소비) 등 수요측 인플레이션(불가상승) 압력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면서, 의견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위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5~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 정지의 경우 지난해 예상했던 '3분기 말~4분기 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총재는 "지난 2개월여간 국제 유가가 큰 폭 하락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점은 7월 전망보다 당겨질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 정지를 지난 후(흐름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공급측 요인에 이어 수요측 요인을 반영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최근 유가가 빠르게 하락했지만, 연평균 유가는 아직 지난 5월 한은이 예상한 유가 수준인데다 농산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들, 기준금리 인상에 예·적금 금리 줄줄이 올려

5대 은행, 최대 0.50%p 인상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5대 은행이 줄줄이 수신(예금) 금리를 올린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 16종·적립식예금 11종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적금 금리는 0.4%포인트, 여행 특화상품인 KB두근두근여행적금 등은 0.25%포인트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 1년 만기 정액적립식 기준으로 최고 연 5.25%, KB반려행복적금은 최고 연 4.00%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예·적금 38종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상품별 가입 기간에 따라 거치식 예금은 최고 0.25%포인트, 적립식 예금은 최고 0.4%포인트 오른다.

신한 뱅거요 적금 금리는 최고 연 3.60%, 신한 알·솔 적금은 최고 연 3.95%, 신한 쏠만해 적금은 최고 연 5.50%까지 각각 오른다.

신한은행의 대표 정기예금인 S드림정기예금 1년 만기 기본금리는 0.25% 포인트 오른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1개 정기예금과 26개 적금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상한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18개 적금과 8개 정기예금 등 총 26개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상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거치식예금 금리는 0.25%포인트, 적립식 예금 금리는 0.25~0.4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수해민 돕기성금 500만원 기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사진 왼쪽)은 25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을 돕기 위해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군산과 익산 등 전북지역과 수도권, 중부지역 등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윤영석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국세청은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해 기탁,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사회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장애인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여



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올해 최고 e스포츠 대학 광주서 가리자

27~28일 전국 결선

올해 최고 e스포츠 대학을 가리는 '2022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결선이 오는 27~28일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기간 광주이스포츠경기장(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2022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결선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e스포츠 대학리그'는 대학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기반 확보와 대학생 대상 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한 대회다. 올해 전국 결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종목은 하스스톤, 피파(FIFA) 온라인 4, 리그오브레전드가 선정됐다. 종목별 우승팀에는 우승 트로피, 상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아울러 하스스톤 종목 우승자에게는 마스터즈 투어 시드권(대진)을 추가로 준다. 주어지고, 피파 온라인4 종목 입상자에게는 넥슨개시가 지급된다.

'2022 e스포츠 대학리그'는 광주·부산·대전 등

지난 6월부터 지역 본선을 치렀다. 전국 9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번 전국 결선에는 지역 본선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24개 대학 대표가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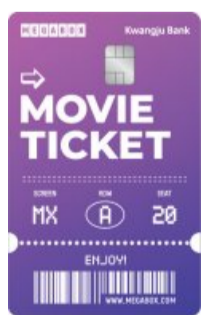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전을 펼칠 '2022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결선은 온라인 시청과 무료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된다. 온라인 방송은 협회와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공식 채널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e스포츠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대회 첫날인 27일에는 피파온라인4의 4강(오후 2시)부터 방송되며 하스스톤 4강전(오후 4시 15분), 리그오브레전드 4강전(오후 6시 30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 방문하면 방송이 송출되는 주경기장 경기 외에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게임도 관람할 수 있다.

대회 2일차인 28일에는 피파온라인4 결선전(오후 2시), 하스스톤 결선전(오후 4시 15분), 리그오브레전드 결선전(오후 6시 30분)과 시상식이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관 할인 '메가박스 카드' 출시 광주은행 내년 2월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이 복합 영화관 할인 혜택을 담은 '메가박스 카드' (사진)를 출시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관련 행사를 벌인다.

지난 3월 광주은행은 메가박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영업망을 연계하고 공동 판촉을 펼치기로 했다.

이 카드 고객은 전달 카드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매달 1회 메가박스 영화관람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중교통,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때는 최고 20%에 달하는 이용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광주은행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은행권 구직자 상담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은행장이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은행권 구직자를 만나 하반기 채용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7.26(+29.81)
↑ 코스닥	807.37(+14.23)
↑ 금리(국고채 3년)	3.531(+0.220)
↓ 환율(USD)	1335.20(-6.90)